

하나의 성과를 놓고서도

2014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첨단연구기지인 한 제작소에도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작소에서 만든 어느한 기구가 우리가 자체로 개발한 처리소자를 리용한 수자식기구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재질이 무엇인가, 원가가 얼마나 드는가, 온도변화에는 어떠한가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곳 과학자들이 개발한 수자식기구가 합금강으로 만든 기구에 비하여 온도에 의한 변형도 적고 가벼운데 대하여서와 기계공업부문에서 많이 요구할것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신께서 한개를 가지고가서 일군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얼마나 좋은가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처럼 우리 과학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놓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그들을 내세워주시려 마음쓰시였다.

과학자들로 하여금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의지를 더욱 가다듬게 하여주는 위대한 어버이의 웅심깊은 사랑이고 믿음이였다.